

교육위, 단국대 비리 정조준... 종합감사 예고

서울 8개 대학·13개 기관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2020 국정감사

정청래 의원, 친인척 채용 등 지적
“이사장 딸, 단국대 교수에 레슨”

유은혜 장관, 수능전형 확대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단국대의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립자 및 임원 총장의 친인척 재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단국대에 대한 종합감사 시행을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단국대 설립자와 이사 등의 자녀들이 단국대 교수로 대거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설립자 장모씨 손자 A씨는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설립자 장모씨 손녀사위 B씨는 의학과 교수 ▲설립자 조모씨 손자 C씨는 치 의학과 교수 ▲이사 윤모씨 딸 D씨는 교육학과 조교수 ▲이사 이모씨 딸 E씨는 국악과 조교수 ▲이사 박모씨 딸 F씨는 성악과 부교수 ▲이사 윤모씨 딸 G씨는 교양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있다.

정 의원은 “이사장의 최측근,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딸에게 재단 돈으로 7700만원짜리 첼로를 사줬다고 한다”며 “이 딸을 단국대 음대 교수에게 레슨을 시키고 교수에게는 연구비를 지급했다. 이 딸은 단국대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및 수의계약 의혹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단국대 관련 ‘일감 몰아주기’ 제보도 14건 접수됐다”면서 “총 1800억원 규모로 거의 수의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건설업자는 단국대 건설만 하

고 다른 공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리베이트가 약 64억원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단국대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종합감사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기에 갑자기 진행하려면 인력 구성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이 많아서 종합감사를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학기부터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격 교육 인프라 제고 방안 등도 질의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23만 9487개 교실 가운데 가운데 무선공유기(AP)가 설치된 교실이 8만 1625개(34.1%)에 그친다”며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원래 2024년까지(무선AP 설치) 계획돼 있는데 코로나 19 상황에서 국고를 지원받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내년 4월까지 특정 전형 쏠림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위주전형 40%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현황을 조사하고,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수능을 무사히 치르고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11월 초부터 교육부는 비상대응체제로 들어간 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온라인으로 대규모 스타트업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월 13

일까지, 연세대를 비롯해 건국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숭실대·인덕대·한양대 등 서울권 8개 대학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기술벤처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2곳 등 총 13개 기관이 ‘Ontact the Chance 스타트업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인 스타트업 채용박람회는 예년과 달리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총 63개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구직자들은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스타트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스타트업과 직무별 채용 정보 및 희망 포지션을 확인해 서류를 지원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과기대

AI응용학과 수시모집 두각

서울과학기술대(이하 서울과기대)의 신설 첨단학과인 ‘인공지능응용학과’가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35명을 선발하는 서울과기대 인공지능응용학과에 총 595명이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7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전체 경쟁률은 총 모집인원 1525명에 1만 7284명이 지원하여 11.33 대 1로 나타나, 신설 첨단학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인공지능응용학과와 주요 전형별 경쟁률은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 6.14 대 1 ▲학교생활우수자전형 17.33 대 1 ▲논술전형 41.57 대 1 이다.

2021학년도 전체 모집정원은 총 60명으로 신입생 전원에게 최대 9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캠퍼스타운 지역연계수업 시상식 모습 /세종대

세종대

지역연계수업 시상식 개최

세종대(총장 배덕효) 캠퍼스타운 지원센터는 지난 28일 ‘2020학년도 1학기 지역연계수업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연계수업은 세종대와 광진구가 한 학기 동안 학교 수업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모두 10팀이 참여했다. ‘SKOP’팀이 ‘서울특별시장상’을, ‘클래식관 광관’팀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이현진 기자

디지털 전환 속도내는 금융업계... 신입 모시기 분주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중요도 ↑ 은행·증권·핀테크 일제히 신입 총원

금융권 신입채용이 한창이다. 지난 달 5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신입공채를 시작하는가 하면 이달 주요 핀테크 및 증권사, 금융공기업에서도 신입 모집기에 동참했다. 10월 현재 하나은행, 국민은행 및 카카오뱅크, KB증권, 한국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한국투자공사 등에서 신입사원 공채 및 수시채용을 진행 중이다.

은행권은 영업소 축소 여파로 전체 채용규모는 줄었지만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해당직무 채용에는 적극적인 모습이며, 핀테크 및 증권사 역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거래량 증가로 신입 총원에 나섰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하나은행은 하반기 150명 규모로 신입사원을 총원한다. 모집분야는 ▲글로벌 ▲디지털 ▲자금/신탁 ▲기업금융/IB이며, 각 분야별로 두 자릿수 규모로 채용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2021년 2~3월 대학(원) 졸업예정자 포함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이며, 세부 자격요건은 모집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입사지원서는 이달 13일(화)까지 받으며, 서류전형 이후 필기전형(집합평가 120분, 온라인 인성검사), 1차 면접(행동사례 면접, PT 면접, 협상면접), 2차 임원면접이 예정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5일 마감한 하반기 신입행원 공개채용에 이어 IT부문 신

(10월 은행·증권·핀테크 등 주요 금융기업 신입 모집)

| 기업명 | 모집구분 | 모집기간 | 필기일정 |
|---------|-----------------------|-----------|----------|
| 한국투자공사 | 2020년 신입직원 채용공고 | ~10/8(목) | 10/24(토) |
| 카카오뱅크 | 경영지원 인턴채용 | ~10/11(일) | - |
| KTB투자증권 | 2021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 ~10/11(일) | - |
| KB증권 | 하반기 신입사원(4급) 공채 | ~10/12(월) | 11월 초순 |
| 하나은행 | 2020년 신입행원 채용 | ~10/13(화) | 11/7(토) |
| 국민은행 | 2020년 신입행원 IT부문 수시채용 | ~10/14(수) | 11/10(화) |
| 국민연금공단 | 2020년 하반기 신규직원 모집 | ~10/14(수) | 11/7(토) |
| 한국투자증권 | 2020년 하반기 신입사원(5급) 공채 | ~10/22(목) | - |

* 위 사항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크루트

입행원 수시채용’을 통해 IT전문가를 모집 중이다. 모집부문은 ▲IT(00명) ▲IT장애인(0명)으로, IT서비스 개발 및 운영, 신기술 기반 업무 담당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으로는 서울, 수도권 지역근무 가능자이며, IT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한다. 입사 지원은 오는 14일(수)까지며, 서류전형 이후 코딩테스트(알고리즘 80%, SQL 20%) 실부면접(PT면접 및 TOPCI T) 인성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런가 하면 카카오뱅크는 정규직 전환형 경영지원 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으로는 졸업 또는 예정자, 6개월간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 자를 선발한다. 입사지원은 오는 11일(일)까지며, 이후 서류전형(실부면접전형) 경영진 면접전형)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금융공기업 하반기 채용소식

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한국투자공사에서 2020년 신입직원을 채용 중이다. 응시자격으로는 공인어학성적보유(토익기준 850점 이상)를 보유자이면 학력·연령·성별 등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NCS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능력평가) 1차,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1차 면접전형에서는 대면면접 및 영어PT면접(일반기준) 진행, 2차 면접은 지원자의 인성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입사지원은 이달 8일(목)까지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달 14일(수) 17시까지 하반기 신규직원을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90명 규모이며, 서류전형) 필기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전형)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종합직무지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은행(하반기 신입행원 공개

채용) 및 하나은행은 모두 필기전형이 11월 7일(토)로 같이 금융권 구직자들에게는 A매치 데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증권업계에서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한창이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점영업 ▲본사영업 ▲리서치 ▲운용 ▲관리 ▲IT부문에서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다. 입사 지원은 10월 22일(목)까지며, 서류전형 이후 AI직무역량평가) 1차 면접) 채용검진) 2차 면접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한국투자증권 라이브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도 채용소식을 접할 수 있다.

KTB투자증권 역시 2021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인원은 두 자릿수 규모이며, 채용부문은 본사영업(IB, 기관영업), 관리(일반관리, IT)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1·2차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4주간 인턴십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지원서 마감 기한은 오는 11일(일)까지다.

끝으로 KB증권은 다가오는 12일(월)까지 하반기 신입사원(4급)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모집부문 ▲S&T ▲디지털 ▲IT ▲리서치 등 총 6개 직무에서 두 자릿수 규모로 신입사원을 채용 중이며, 금융 및 IT자격증 소지자, 이공계 전공자, 외국어 활용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AI면접) 1, 2차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IT지원자에 한해 코딩테스트가 예정돼 있다.

/이현진 기자